

지난 11월 18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폴커 노이만 Volker Neumann(60) 씨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계획 구상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파주출판단지를 방문하고 뮤지컬 명성황후를 관람하며 닷새의 일정 중 이틀을 보냈다는 폴커 노이만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Gutan tag”이란 독일어 대신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이창동 장관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관한 전반적인 구상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도서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이렇게 열성적일 줄은 짐작치 못했습니다. 특히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는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도서전 주빈국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참가 출판사만 세계 6,000여 곳에 달하는 국제적인 도서전이다. 비단 출판만을 협약하는 자리가 아닌,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보아도 좋다. 지난 10월 13일 막을 내린 200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협정서에 따라 주빈국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기다려 온 일입니다. 한국이 주빈국 준비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번역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부터 서둘러야 2005년 도서전에서 한국의 작품을 훌륭히 소개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소개될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역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위해 3,000여 평의 장소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 전역에서 장거적인 문화행사를 펼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독일의 공연장이나 박물관은

장기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약해 두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은 선진산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서전 주빈국을 계기로 한국이 문화국가로서 ‘발전’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홀거 에링 Holger Ehling 씨는 최근 평양을 방문했다. 도서전 관련 방문이 아닌, 독일문학과 북한문학이 협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문제 때문이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홀거 에링 씨는 폴커 노이만 씨에게 한국 주빈국 행사에 북한의 참여를 얘기했고, 폴커 노이만 씨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흔쾌히 화답했다. 그러나 출판 쪽을 공략하기보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북한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폴커 노이만 씨의 생각. 분단역사를 경험한 폴커 노이만 씨의 문화행정가적인 덕목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폴커 노이만 씨는 일본에서 월드컵 중계를 중단하고 도서전 홍보방송을 내보낸 사례가 있을 만큼 월드컵보다 더 인기 있는 행사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고 자랑한다. “물론 동감한다”는 기자의 대답에 “사실 무하마드 알리 덕이었을 뿐”이라며 폴커 노이만 씨는 유쾌하게 웃는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월드컵의 열기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으로 옮겨가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한국의 저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프랑크푸르트의 2005년이 몹시 기대됩니다.”

폴커 노이만 씨는 다음 일정으로 인사동 방문이 잡혀 있다며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과 주빈국 행사기획에 대한 진단만은 매섭고도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준 폴커 노이만 씨였다. **한민**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2002 월드컵 열기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으로... 축구중계보다 유익한 문화행사 만들기를

폴커 노이만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강숙 위원장과 주빈국 행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